

『한민족어문학』 제75집 편집자의 말

『한민족어문학』은 올해부터 발간 횟수를 연 4회로 늘리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 호인 75집은 투고 마감 날짜 변경 등을 비롯한 여러 환경의 변화로 우러가 적지 않았으나, 큰 어려움 없이 발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학문 분야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고전문학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홍보에 힘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점들은 차차 개선되리라 본다.

제75집에 실린 논문은 총 8편으로 국어교육이 1편, 고전문학이 6편, 현대문학이 1편이다.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으로는 조성숙의 「조신의 ‘꿈’의 구조를 통한 자기서사적 글쓰기와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이 실렸다. 이 연구는 『삼국유사』 「조신」의 ‘꿈’의 구조를 통하여 자기의 현재 욕망을 탐색하고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자기서사 글쓰기는 내면의 점진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치며 문학치료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고전문학 분야는 이경희의 「필사본 <적성의전> 이본 연구」, 정목주의 「淸涼山の ‘高山景行’ 이미지 形成 動因과 그 原理」, 이황진의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 문범두의 「『운영전』 궁녀집단의 사회적 성격과 작가 의식」, 권진옥의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의 기문(記文) 연구」, 김영덕의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 수용에 관한 통시적 양상 연구」 등 6편이 실렸다.

이경희의 「필사본 <적성의전> 이본 연구」는 고전소설 <적성의전>의 필사본 15종과 방각본 2종 등 총 17종을 대상으로 한 이본 연구이다. 필사본은 소설 창작 당시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진 자료가

다. 이런 까닭에 현존하는 개별 필사본들에 나타나는 서사 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이본 상호간의 영향과 역학 관계를 추정해 보는 일은, 창작 시기와 작자 미상인 고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정목주의 ‘淸涼山의 ‘高山景行’ 이미지 形成 動因과 그 原理’는 청량산 박물관에서 발간한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에 수록된 유람록을 분석하여 ‘고산경행(高山景行)’의 이미지를 도출하였으며, 이런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과 그 형성 동인, 그리고 그 형성 원리를 고찰한 것이다.

이황진의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는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유배시의 보편적인 특징이라 여겨지는 정서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고, 남구만의 유배와 유배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문범두의 ‘『운영전』 궁녀집단의 사회적 성격과 작가 의식’에서는 <운영전>이 애정 서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완성도 높은 서사형식을 통하여 다양한 작가적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소설공간으로서 수성궁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궁녀집단은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의 사회 형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것의 작가적 의미를 기존 논의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의의 목적이다.

권진옥의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의 기문(記文) 연구’는 17-8세기 지성사에서 소론계(少論系)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19세기 소론계 학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인물인 약천 남구만을 대상으로, 그가 남긴 기문 세 작품 『망운정기(望雲亭記)』, 『북관십경도기(北關十景圖記)』, 『온양온천북탕기(溫陽溫泉北湯記)』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김영덕의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 수용에 관한 통시적 양상 연구’에서는 <장진주사>가 노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장진주사를 노래할 수

가집'으로 만든 집단"과 "'장진주사를 노래할 수 없는 가집'으로 만든 집단"으로 구별되었고, 전자는 정간보와 같이 악보화를 할 수 있어 가곡으로 노래하는 전통이 현재까지 수용되어 왔으며, 후자는 악보화를 하지 못한 채 기록으로만 남겨 두게 되는 차별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현대문학 분야의 논문으로는 김춘규의 '문학 텍스트로서의 공간 연구 - 이청준 작품을 중심으로 -'가 실렸다. 이청준의 문학 텍스트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다 삶'이다. 또한 '바다를 공간으로 하는 텍스트'는 단순히 소설적 장치로서만 머물지 않는다. 이 논문은 문학 텍스트가 일정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의미의 단락이며 상징의 언어체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